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56

#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

(사무엘상 18:1~19:24)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모였다 하면 다윗을 칭찬하기 바빴고**  
**모두가 다윗을 사랑했죠.**

**특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게 되었어요!**

**“다윗, 내가 너보다 나이는 많지만**  
**너처럼 용감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 무지막지한 골리앗과 맞설 생각을 하다니.**  
**이야~ 그때부터 난 네 팬이 됐다고! 헤헤.”**



요나단은 자기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기도 하고  
자기의 갑옷과 칼, 활도 선물로 주었어요.  
다윗도 의로운 요나단 왕자를 좋아해서  
둘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한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의 인기가 못마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사울 왕이었죠.  
하루는 사울 왕이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죽인 적은 천천이요~”**

그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내심 흐뭇했죠.

**‘하하. 내가 죽인 전이 수천이라는 게지?  
나를 높이는 노래였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노랫말이  
사울 왕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뭐? 내가 수천을 죽일 동안 다윗은 수만을  
죽였다는 말인가?  
이건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는 노래가 아닌가.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넘보겠어.’**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는  
다시 나쁜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차올라서  
급기야 사울 왕은 이상한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기까지 했죠.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 하프를 연주해 주었지만  
이제 그 아름다운 하프 소리는  
사울 왕의 화만 더 돋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다윗이 자신을 위해 하프를 연주하는 동안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까지 했죠.

다윗이 민첩하게 피하지 않았더라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사울 왕은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을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다윗이 알미워져서 그만  
첫째 딸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고 말았죠.

다윗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도 있었어요.  
미갈의 마음을 알게 된 사울 왕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했어요.

**“다윗에게 전하여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온다면  
내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것이다.”**

한 사람이 100명을 해치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믿은 거죠.



하지만 다윗이 누군가요? 다윗의 곁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 왕이 명령한 것보다 두 배나 많은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처치하고 왔죠.

“이백명?? 이놈 다윗이  
주제도 모르고 나서는구나.”

사울 왕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윗을 딸과 결혼시켰지만 마음 속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이젠 다윗을 원수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죠.

**“지금 당장 다윗을 없애버려라.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서 움직여!”**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요나단은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우정을 약속한 다윗을 차마 죽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애원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께 나쁜 짓을  
하러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고 온 다윗이잖습니까.  
아버지께서도 그땐 기뻐하셨잖아요.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요나단의 말에 사울 왕은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하... 알았다, 알았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 맹세하마.”

하지만 이후로도 다윗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고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울의 질투는 눈덩이처럼 커져갔어요.

**“더는 못 참겠다. 당장 다윗의 집에 들어가서  
그자를 내 앞에 끌고 오거라!”**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꾀를 부렸죠.

미갈은, 재빨리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가게 하고는 침대에 조각상을 눕혀놓고  
그 조각상에 옷을 입혔어요.  
또 염소 털을 위쪽에 씌워서  
마치 사람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다윗을 데려오라는 왕의 명령이다.  
순순히 나오거라!”**

**“저... 저희 남편은 지금 몹시 아파서 누워있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 있을 때  
왕께 찾아가라 전하겠습니다.”**

**신하들은 하는 수 없이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이미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였죠.**



**“아파서 일어날 수 없다면 침대를 통째로 들고 오너라.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일 것이니!”**

그리고 신하들이 다시 다윗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미갈이 속임수를 썼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건, 다윗이 아닌  
사람 옷을 입은 조각상이었으니까요.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가가스로 고비를 넘긴 다윗  
반대로 사울 왕은 점점 안달이 나서  
더 이상 화를 다스릴 수 없었어요.

**“내 아들 녀석 딸 녀석까지  
다윗을 감싸고 도는구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난데, 하나같이  
내 원수 녀석 편을 들고 있어 건방진 녀석.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윗을 없애고야 말 것이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과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린 다윗  
과연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